

제3의 공간: 경계

“경계에 선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스스로의 결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경계의 거친 생명력을 포용할 수 있는 열려 있는 의식도 필요하다.

나의 내면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과 나약한 모든 것들을 들춰내고 나 자신의 경계로 나올 때만이 성장의 공간이 열리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는 이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EU체제에 있는 유럽 국가들은 사실상 사회적, 경제적인 경계가 무의미하다. 한국도 더 이상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서 예외는 아닌 듯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모여 살고, 다문화 가정들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오래다. 호미 바바(Homi Bhabha)는 이러한 이주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현상을 “제3의 공간 Third Space”라고 정의했다. 이는 다수와 소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넘어 새롭게 창조되는 문화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서로 이질적인 것들 사이를 넘나드는 경계에서 새로운 ‘열린 공간’이 창출되는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과 타인’, ‘안과 밖’, ‘선과 악’ 같은 이분법적 세계관에 갇혀 살아왔다. 이것은 하나의 주체를 통해서만 대상을 해석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게 하고 있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경계는 늘 갈등의 근원을 제공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선을 넘어선다는 것 자체가 생존의 위협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수없이 목격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는 경계에 서기를 꺼려하고 한쪽 깊숙이 들어앉으려 하는 습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안주하는 삶을 지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나’는 밖으로 걸어 나가야만 한다. 자신과 타인의 경계에 설 때만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안과 밖’의 경계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빛과 어둠’의 경계에 섰을 때 명암의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신의 틀 안에서, 제도의 틀 안에서, 나를 감싸고 있는 습성과 편견의 틀 안에서 깨어 날 때 나의 온전한 삶의 행위가 가능한 것이다. 경계에 서는 것은 본질에 직면하는 것이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경계에 선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스스로의 결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경계의 거친 생명력을 포용할 수 있는 열려 있는 의식도 필요하다. 나의 내면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과 나약한 모든 것들을 들춰내고 나 자신의 경계로 나올 때만이 성장의 공간이 열리는 것이다. 나의 두려움의 끝이 곧 경계다. 그 선상에 나를 세우자.

고객과 시장의 관점에서 우리는, 안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경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안주의 본질은 두려움이며, 경계의 본질은 역동적 생명력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그 경계가 바로 우리가 살아 숨 쉬는 제3의 공간이 될 것이다. 2014년, 글로벌 역량을 기치에 걸고 고객과 강사 그리고 캐리션들 모두가 경계에서 함께 성장하는 장(場)이 되길 바란다.



James Roh

Written by C.E.O James Roh(노상충)

“자신의 발만 쳐다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별들을 바라보라!” _스티븐 호킹